

## 미국 NBC 방송 코미디 프로그램 SNL 트럼프 대통령 풍자코너 '대박'

미국 NBC 방송의 코미디 프로그램 새터데이 나이트 라이브(SNL)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참모진을 기막히게 풍자하는 코너로 대박을 터트리고 있다. SNL의 트럼프 대통령 풍자코너는 시청자들로부터 갈수록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영화배우 알렉 볼드윈은 트럼프와 똑같은 헤어스타일과 옷차림, 표정과 동작을 흉내내 이미 전성기 때 부럽지 않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힐러리 클린턴 지지자로 알려진 볼드윈은 최근 언론인터뷰에서 "트럼프가 메인작가"라면서, 트럼프 스스로 일으키고 있는 논란과 각종 발언이 더없이 좋은 풍자 소재가 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5일(현지시간) 방송된 SNL에서도 트럼프를 연기한 볼드윈은 '악령'으로 분한 스티븐 배넌 백악관 선임고문 및 수석전략가의 말에 쉽게 넘어가는가 하면, 말끔 턴블 후주 총리와 전화하다가 "아메리카 퍼스트다. 후주는 재수없다. 당신네 산호는 다 죽었다. 전쟁이다"라고 외치다가 일방적으로 전화통화를 끊어버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턴블 총리와 전화통화 도중 버락 오바마 전 정권과 후주 정부간에 맺은 난민교환협정을 비판하다 전화통화 중간에 끊어버렸던 일을 비꼰 것. SNL은 선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도 풍자의 먹잇감으로 삼아 뜨거운 반응을 모았다. 5일 프로그램에서 여성 연기자 멜리사 매카시는 스파이서 대변인으로 분

장해, 정례브리핑에서 기자들에게 공격적으로 소리를 치듯하며 억지 주장을 퍼는 실제 스파이서를 똑같이 연기해 시청자와 관객들을 포복절도하게 만들었다. 매카시는 특히 스파이서 대변인이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은 입국 금지(Ban)조치가 아니라 앞뒤가 안맞는 말을 했던 것을 능청스럽게 연기하는가 하면, 브리핑 중 마음에 들지 않는 질문을 한 기자에게 물총을 쏘아대는 등 열연을 펼쳤다. 이날 SNL을 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매카시에 대해 "스파이서 보다 더 스파이서 같다"고 격찬을 아끼지 않았고 WP는 전했다. 연기자 케이트 맥키엔 역시 SNL에서 켈리언 콘웨이 백악관 선임고문의 말

투와 표정, 화려한 옷차림을 흉내내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한편 스파이서 대변인은 다음 날인 5일 미국 최대 스포츠 축제인 슈퍼볼 게임을 관하는 도중에도 트위터상에서 화제의 주인공이 됐다. 축구팬들이 경기를 보면서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로 스파이서 대변인을 비교하는 메시지를 쏟아낸 것 워싱턴포스트(WP)는 일부 팬들이 트위터에 "슈퍼볼을 본 사람보다 (트럼프) 취임식에 온 사람이 더 많다" 등 스파이서 대변인이 앞서 했던 논란의 발언을 비튼 메시지를 올렸다고 전했다. 스파이서 대변인은 "트럼프 취임식에 참석한 인파가 역대 최고"란 근거없는 말을 해서 비난을 자초한 바 있다. /뉴시스

### 구자철 원맨쇼, 아우크스부르크 브레멘에 역전승

아우크스부르크는 5일 밤(한국시간) 독일 아우크스부르크 WWK 아레나에서 열린 2016~2017 독일 분데스리가 베르데 브레멘과의 경기에서 3-2로 이겼다. 후반 중반까지 1-2로 끌려가던 아우크스부르크를 패배의 늪에서 건져낸 이는 구자철이었다. 구자철은 후반 34분 폴 베르헤호의 크로스에 왼발을 갖다 대 동점골을 뽑았다. 수비의 방해로 중심을 잃었지만 집중력을 유지하면서 득점에 성공했다. 리그 2호골. 그의 활약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후반 추가 시간에는 수비수 머리 위로 지나가는 감각적인 패스로 라울 보바다야의 결승골을 도왔다. 영국 축구 통계업체 후스코어닷컴은 구자철에게 평점 8.71를 부여했다. 팀은 물론 이날 그라운드를 밟은 모든 선수 중 가장 높은 점수다. 아우크스부르크는 승점 24(6승6무7패)로 10위가 됐다. 지동원도 측면 공격수로 풀타임을 뛰며 승리에 힘을 보탤다. /김민근기자

### 설기현, 슈틸리케호 대표팀 코치 선임

설기현이 슈틸리케호 코치로 합류한다. 대한축구협회는 6일 설기현 성균관대학교 감독을 울리 슈틸리케 감독이 이끄는 축구 국가대표팀 코치로 선임했다고 발표했다. 계약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러시아월드컵 본선 종료까지다. 설 선임 코치는 이날 오후 2시 축구회관 2층 회의실에서 이용수 기술위원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는다. 설 코치의 합류로 국가대표팀 코치진은 아르무야 코치, 설기현 코치, 차상광 GK코치로 구성됐다. 차두리 전력분석관이 코칭스태프를 돕는다. 협회는 지난해 11월 신태용 대표팀 코치가 U-20 청소년대표팀 감독으로 자리를 옮기자 대체 인물로 외국인 지도자를 선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사정이 여의지 않자 국내 지도자로 방향을 전환했고, 결국 설 코치를 선임하게 됐다. /김민근기자



## 안병훈, 피닉스 오픈 6위 마감... PGA 투어 첫 승 '다음기회로'

### 마쓰야마 히데키 4차 연장 끝 대회 2연패 성공 시즌 2승 달성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첫 승에 대한 부담 때문이었을까. 안병훈(26·C대한항공)이 우승 문턱을 넘지 못하고 6위에 만족해야 했다. 마쓰야마 히데키(일본)는 4차 연장 끝에 대회 2연패에 성공하며 시즌 2승째를 달성했다. 안병훈은 6일(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스코츠데일의 TPC 스코츠데일(파71·7266야드)에서 벌어진 웨이스트 매니지먼트 트 피닉스 오픈 최종일 버디 3개와 보기 5개로 2오버파를 쳤다. 최종합계 14언더파 270타를 기록한 안병훈은 6위로 대회를 마감했다. 3라운드까지 16언더파로 단독 선두에 올라 첫 승에 대한 기대가 높았다. 챔피언즈에서 경기한 안병훈은 전반에 버디 3개와 보기 1개로 2타를 줄이며 순항하는 듯 보였다. 그러나 후반 들어 급격히 흔들렸다. 10번홀(파4) 티샷이 벙커에 빠지면서 보기를 범했다. 이어 11번홀(파4)에서는 두 번째 샷이 핀을 넘어 워터 헤저드에 들어가 연속 보기를 기록했다. 이후 버디 기회를 여러차례 잡았지만 이번에는 퍼트가 말을 듣지 않으면서 좁 처럼 타수를 줄이지 못했다. 그 사이 경쟁자들은 무섭게 치고 올라왔

다. 결국 17번홀(파4)도 짧은 파 퍼트를 놓치며 한 타를 더 잃었고 18번홀(파4) 역시 보기로 마무리하며 아쉽게 대회를 마무리했다. 안병훈은 두오두고 아쉬움이 남은 대회가 됐다. 첫째날과 둘째날 5타씩을 줄이며 상위권을 유지했고, 무방대에는 보기 없이 6언더파를 치며 단독 선두로 나섰다. 앞선 3일 동안 버디 17개를 잡아내는 동안 보기는 단 1개에 그쳤다. 절정의 샷감을 자랑하며 첫 승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고조시켰다. 그러나 최종일 챔피언즈에 대한 부담을 떨쳐내지 못했다. 드라이브 정확도가 떨어지는데다가 퍼트의 안정감마저 잃어버리며 부진했다. 올 시즌 PGA 투어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안병훈은 지난해 5월 '취리히 클래식'에서 2위에 오른 것이 가장 좋은 성적이었다. 아쉬움이 많이 남은 한주였지만 시즌 첫 톱10에 들며 자신감이라는 큰 소득을 얻었다. 반대로 전날 35위로 추락했던 강성훈(30)은 이날 버디 6개와 보기 1개로 5타를 줄이며 11언더파 273타를 쳐 공동 12위를 차지했다. 시즌 8개 대회에 출전해 무려 6차례나



안병훈은 6일(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스코츠데일의 TPC 스코츠데일(파71·7266야드)에서 벌어진 웨이스트 매니지먼트 피닉스 오픈 최종일 버디 3개와 보기 5개로 2오버파를 쳤다. 첫 탈락했던 강성훈은 시즌 최고 성적을 올리며 앞으로의 활약을 기대하게 했다. 디펜딩 챔피언 마쓰야마는 웬 심슨(미국)과 함께 최종일 나란히 17언더파 267타를 기록, 연장 승부에 돌입했다. 마쓰야마는 연장 네 번째 홀인 17번홀서 버디를 기록하며 파에 그친 심슨을 따돌

### 한국 알마티 동계U대회, 중간순위 종합 3위

한국이 제28회 알마티 동계유니버시아드에서 금메달 4개와 은메달 2개를 따내며 종합 3위로 뛰어올랐다. 한국 쇼트트랙 대표팀은 6일(한국시간)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열린 대회 남자 1500m 결승에서 박지원(단국대)이 2분30초622의 기록으로 가장 빠르게 결승선을 통과하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김도겸(스포츠포토)은 2분30초773으로 은메달을 차지했다. 여자 1500m에서는 손하경(한국체대)이 2분34초591의 기록으로 금메달을 따냈고 김이림(한국체대·2분35초010)은 은메달을 목에 안았다.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팀추월 종목에서도 2개의 금메달을 추가했다. 문현웅(한국체대), 오현민(한국체대), 이진영(강원도청)이 출전한 남자 대표 팀은 4분00초43로 가장 빠르게 결승선을 통과해 일변(4분03초77)을 밀어내고 시상대 제일 위에 섰다. 여자 대표팀 역시 전예진·남지은(이상 한국체대), 임정수(강원도청), 박초원(단국대) 등이 활뎠. 호흡을 과시하며 3분13초65의 기록으로 러시아(3분18초58)를 제치고 금빛 레이스를 펼쳤다. 이날 금메달 4개, 은메달 2개를 추가한 한국은 금메달 7개, 은메달 3개, 동메달 3개로 종합 순위 3위에 올랐다. /김민근기자

# 위대한 체·인·지의 시작

# 태권도원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태권도 교육, 체험, 수련, 문화교류의 장  
<http://www.tkdwon.kr>

태권도원 - 우리 세대에 우리가 만든 세계문화유산

올림픽 단일종목으로는 최초로 국제경기, 체험, 수련, 교육, 연구, 교류 등 태권도에 관련된 모든 것이 가능한 세계 유일의 태권도 전문공간입니다. 또한 전 세계인이 태권도를 통해 한국을 느끼고 한국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시대의 살아있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Taekwondowon**  
THE GREAT CHANGE

태권도원

전북 무주군 설천면 무설로 1482 / 063) 320-0114